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몸살'

부지 특혜 시비 휩싸인 부영 소송 패소로 51억 보상 '눈앞' 공기업 LH도 패소·상고 영무·중흥 등 줄줄이 소송 중

나주혁신도시가 한전부지 관련 부영건설 특혜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이미 분양 입주한 아파트는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분양돼 입주한 아파트는 LH 2·3단지 1226세대, 부영 1단지 946세대, 우미린 1078세대, 영무예다음 614세대, 대광로

제비양 920세대, 대방엘리움 1·2차 765세대, 중흥센트럴 1·2차 1714세대, 이지더원 293세대 등 총 7556세대다. 또 혁신도시 내 임대 아파트는 부영 2·3단지 2266세대, LH 1·3·5·6단지 3636세대, 중흥리버티 698세대 총 6600세대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소송에 휘말려 '혁신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최근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은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전에서 지난해 10월 패소(1심)해 51억4000만원을 보상할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영무, 중흥 1·2, 대광도 줄줄이 소송 중으로 법원에서 현장 실사가 진행중이거나 마친 상태다.

특히 공기기업인 LH는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2단지는 대법원에 상고 중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하자 및 부실시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혁신도시 주민들은 특정 브랜드 아파트가 혁신도시에 숲을 이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월 기준 나주혁신도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1만7920세대 중 LH가 4862세대, 부영이 6976세대(건설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부영 B1·B7·C6·C7블록 3764세대 포함)로 두 회사 브랜드만 1만1838세대에 이른다. 여기에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 기탁의 대가로 용도변경을 요구한 5328세대가 들어설 경우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만 1만2304세대

로 전체 아파트(2만3248세대)의 절반을 넘게 된다. 빛가람동에 사는 김 모씨는 "분양 아파트도 하자 투성인데 그 많은 임대 아파트는 안 봐도 뻔하다"며 "부실이 많은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줘가며 5300세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면 한심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모 아파트 준공 때 하자 및 부실시공 민원으로 한참을 허기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며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고 싶어도 이진 공기업 직원들이 서울 집을 팔고 내려와야 할 상황에서 준공 허가를 마냥 미루기도 어려웠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광주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인권실태 온라인 전수조사

광주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 학교 운동부 초·중·고등학교 12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학생 선수가 많은 학교 운동부(야구·축구) 지도자 23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도 오는 24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8월 3일부터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 선수들이 토론과 역할극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 내에 잠재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할 방침이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인식 개선과 학생 선수들의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예방 중심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시행해 인권 친화적 학교 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시 안전모니터봉사회 방역 봉사 21일 광주시 안전모니터봉사회(회장 고운순) 회원들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계수초등학교 일대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광주 동구, ACC 주변 건축물 높이 12층 이하 제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광주시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고층 건축물 높이 제한을 42m 이하로 결정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ACC 주변 고층건축물 건축 시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고 문화전당 경관 훼손을 막고자 'ACC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ACC 주변 자연경관 즉 무등산의 연속적인 시

각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상업·문화시설과의 조화를 이룬 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맞춰 최근 개최된 동구건축위원회에서는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석동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4차례 심의한 결과, 도로변에서 13m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42m이하 12층으로 결정했다. ACC 주변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고층 건축물로 인한 문화전당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서석동 해당 오피스텔 높이는 83.4m(26층)으로 계획했고, 지난해 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6차례 심의를 거쳐 63m이하로 통과시켰으나, 동구는 다시 건축물 높이를 42m이하로 내려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동구는 ACC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구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동구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교육정보원 이설·AI 교육센터 설립 전남, 농산어촌 학교 통합운영 활성화 요청

유은혜 교육부장관 순천 방문 광주·전남교육감과 간담회

광주·전남교육청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교육정보원 이설과 인공지능(AI) 교육센터 설립,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활성화를 요청했다. 21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사·도교육청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간담회에서 각각 이 같은 사안을 공식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순천시 순천만국제 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권역별(호남권) 포럼'에 참석한 뒤 광주·전남교육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시 교육청은 오랜 숙원인 노후 청사 문제를 교육연구정보원과 진로체험센터 설립 등과 묶어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하고, 교육연구정보원 이설과 AI 교육센터 구축 사업비 총 450억원 중 225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과 진로체험센터를 광주자연과학고 내 유유부지 2만1172㎡(6405평)로 이설하면 현재의 교육연구정보원 건물은 시 교육청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안이 성사되면 부지 매입비를 줄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연

수원과 연계해 대형버스 주차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설립예정인 진로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진로체험이 가능토록 관련 첨단시설을 구축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착공, 2023년 개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농산어촌 통합학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현행법상 초·중·고 등 자격에 의한 교원 배치의 한계, 과중한 업무로 인한 복수 자격 교원의 겸임 기피,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미비 등이 통합학교 운영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고 교사의 겸임과 교사 수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통합학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 교육청 판단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개(초·중 5개교, 중·고 7개교) 학교를 내년에는 14개교로 늘린다는 목표다. 특히, 통합학교 소속 교원이 교과와 창의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과 통합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동강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참여

광주 전문대학 중 유일 동강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광주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한 다. 동강대는 광주·전남지역 15개 대학과 32개 기관이 손을 맞잡은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에 동참해 에너지산업과 미래형운송기기 분야 발전에 힘쓴다. 이를 위해 동강대는 기계자동화와 전기과·드론과 등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AI 및 IC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운송기기 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코로나19 대응 돌봄이웃 밀반찬 지원 나서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밀반찬 지원에 나선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다음달 7일까지 노인, 장애인, 1인 위기가구 등 돌봄이웃 850세대를 대상으로 밀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북구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제작하는 반찬을 제공하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 종합사회복지기관 6개소와

함께 추진한다. 북구는 각 동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 받은 대상자의 가정에 밀반찬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밀반찬 전달 시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등 안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요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